올해 新전성기 맞이할 '정통사극의 시대'

끊어졌던 사극의 계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2016년 KBS가 '다산 정약용'의 편성 취소를 문자로 통보했고, 2017년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등의 작품 이후 사극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며 시청자들의 아쉬움도 컸다. 사실상 사극은 '돈 덩어리'라고 할 정도로 비용이 만만찮은 작품들로, 제작사와 방송사의 큰 결단이 없이는 시청자들을 만나기가 힘들었다.

아낌없이 투자 하는 방송사 물결 이어져

특히 과거 내놓기만 해도 성공을 거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사극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도도 떨어졌고, 각종 예쁜 옷을 입은 퓨전사극이 등장했으며 공을 많이 들인 판타지, 수사극, 미스터리극이 아니고서는 시청자들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

배우들의 하소연도 이어졌다. '2018 KBS 연기대상'에서 유동근은 대하사극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며 타사 드라마인 tvN '미스터 션샤인'까지 언급했다. 그는 "'미스터 션샤인'의 멋진 연기도 좋았지만 그 드라마로 의병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시청자 분들이 열기와 열정, 성원을 보내주시면 대하드라마가 반드시 부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외쳤다. '장녹수'(1995)와 '조광조'(1997), '명성황후'(2001), '정도전'(2014) 등 수많은 사극을 이끌었던 배우 유동근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었다. 또 일명 '고종-순종-최수종'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수많은 사극에 출연했던 최수종도 사극의 소멸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바 있다.

시대가 또 변해가고 있다. 방송사들이 다시 '사극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많게는 300억원까지 사용하는 등 사극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방송사들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그 시작은 tvN '왕이 된 남자'였다. 1000만 영화인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광대와 왕의 '인생 바꿔치기'를 고급스러운 문법으로 담아내며 호평을 받았다.

또 지난달 11일 출발한 후 줄곧 시청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SBS '해치'는 MBC '이산'과 '마의' 등 다수 정통 사극을 써냈던 김이영 작가의 신작이자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영조 이금(정일우)의 젊은 시절을 그려내는 작품이다. 그동안 '사극=아버지 드라마'라는 생각이 강했던 방송가에서 '해치'는 전 연령층이 볼 수 있는 요소들을 곳곳에 심어두며 미니시리즈 시간대를 공략했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들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가장 먼저 공개되는 작품은 MBC '이몽'으로, 수년의 준비 기간을 거치며 제작기를 알려왔다. 사임당, 빛의 일기'의 윤상호 PD와 '아이리스'를 쓴 조규원 작가가 손을 잡은 250억원 규모의 대작 '이몽'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후원한다. 일본인의 손에서 자란 조선인 외과의사 이영진(이요원)과 비밀결사 의열단장 김원봉(유지태)이 상하이 임시정부의 첩보요원이 되어가는 이야기로 몽골과 상하이 등에서 촬영한다. MBC는 7월 방송 예정인 '신입사관 구해령'도 준비하고 있다. 19세기를 배경으로 한 '신입사관 구해령'은 인턴 여사관들의 궁궐 생존기를 담은 작품. 구해령(신세경)과 도원대군 이림(차은우)의 로맨스도 그려질 예정이다.

SBS도 동학농민운동 125주년을 맞이해 대작 드라마인 '녹두꽃'을 준비했다. 200억원 규모의 작품인 '녹두꽃'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당시 농민군과 토벌대로 갈라져 싸워야 했던 이복형제 백이강(조정석)과 백이현(윤시윤)의 이야기를 담는다. '뿌리깊은 나무'로 SBS 사극의 새 역사를 만들었던 신경수 PD와 대하드라마의 꽃인 '정도전'을 쓴 정현민 작가가 손을 잡았다. 맥이 끊어졌던 사극의 역사를 두 사람이 함께 열어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정 작가는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간 전사들과 백성들에게 바치는 헌사"라고 드라마에 대해 설명했다.

KBS에서는 대하드라마의 부활이 논의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약산 김원봉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현재 내부적으로 정리 중인 상황이지만, 캐스팅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또 KBS는 안중근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의군-푸른 영웅의 시대'를 기획하고 청년 안응칠에서 대한의군 참모장 안중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낸다. 300억원대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대작으로, 중국 현지 촬영 등 대규모 촬영이 예정돼 있다. 안중근기념사업회와 항일 독립운동가 단체연합회와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 역사적 고증에 힘을 쏟고 있다.

JTBC에서도 새 사극을 선보인다. 250억원 규모의 '나의 나라'다. 대세 신예 배우들인 양세종과 우도환이 투톱을 맡았고, 설현이 합류했다. 고려 말과 조선 초기를 배경으로 한 사극으로 자신의 신념이 말하는 '나의 나라'를 두고 서로에게 칼끝을 겨누며 권력과 수호에 관한 욕망을 그려낸다. 우도환과 양세종의 액션도 볼 수 있을 예정. 뿐만 아니라 장혁과 유오성, 박예진 등 출중한 배우들이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선보여질 사극에 쏟아지는 비용만 약 1000억원 규모다. 시장이 커진 데에는 그동안 사극을 찾아볼 수 없던 시청자들의 수요도 쏟아졌다. 한 방송사 관계자는 "각 방송사가 그동안 외면했던 사극을 쏟아내는 것은 흥행을 유지하는 데 사극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기 때문"이라면서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한 해를 맞이해 각 방송사에서 의미 있는 작품들을 선보이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았다. 브라운관에 또 한번 사극 열풍이 불고 있다.

'프로듀스X101', 독이 든 성배 vs 성공 지름길

'독이 든 성배'인가 '성공을 향한 지름길'인가. 2016년 아이오아이, 2017년 워너원, 2018년 아이즈원을 탄생시킨 '프로듀스 101'의 네번째 시즌 '프로듀스 X 101'(이하 '프듀 4')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Mnet '프듀'는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이번 시즌은 남자연습생들이 출연하며 제2의 워너원 탄생이 기대되고 있다. 지난 4일 첫 촬영과 함께 합숙을 시작한 가운데 배우 이동욱이 국민 대표 프로듀서를 맡았고 시즌2에서 활약했던 랩 트레이너 치타, 댄스 트레이너 권재승에 보컬 트레이너 이석훈과 신유미가 함께한다.

'프듀'가 가진 힘은 이미 앞선 3번의 시즌을 통해 충분히 입증했다. '프듀'는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포맷을 선보이며 매 시즌 한국 가요계 역사를 새롭게 장식한 아이돌을 탄생시켰다. 비단 아이오아이, 워너원, 아이즈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 조명된 참가자들도 적지 않은 인기를 등에 업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더 유닛' '믹스나인' '언더나인틴' 등 유사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이돌 그룹 탄생이 실패하거나 데뷔하더라도 별다른 파급력을 보이지도 못하는 것과 분명 대비되는 결과다.

워너원에 이어 두번째 남자 아이돌 탄생을 꾀하는 이번 시즌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획사 입장에서는 출연만으로 매력적인 카드지만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위험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프로그램 특성상 시한부 프로젝트 그룹일 수 밖에 없는 한계 속 이번 시즌은 계약기간을 총 5년(2년 6개월은 전속계약·2년 6개월은 개별활동)으로 연장했다. 앞서 시즌1 아이오아이는 1년, 시즌2 워너원은 1년 6개월, 시즌3 아이즈원은 2년 6개월을 계약한 것에 비해 파격적인 기간이다. 게다가 다른 신인들과 달리 '프듀'로 탄생된 아이돌은 큰 인기와 팬들을 가지고 데뷔하기에 5년이라는 기간은 기획사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의 취지와 역할이 가진 순기능을 인정하지만 방송 후 방송사나 제작사가 탄생한 팀에 대한 일정기간 매니지먼트 권한을 독점하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가요계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다. 현재 몇몇 손에 꼽히는 기획사를 제외하고는 아이돌 그룹 제작이나 홍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프듀' 출연은 달콤하지만 반대로 기획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음반제작 및 유통 그리고 아티스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CJ ENM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이익은 늘어나는 것과 달리 중소기획사는 생존 자체를 위협 받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5년 계약은 결국 CJ ENM과 Mnet 측이 더 큰 실속을 챙기기 위한 꼼수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트와이스,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 1위 '최고기록 경신'

트와이스가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트와이스가 3월 6일 발매한 앨범 '#TWICE2'는 9만 5825포인트를 기록, 발매당일 오리콘 데일리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2위 가수의 6228포인트와는 압도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이 수치는 트와이스의 앨범 중 발매 당일 오리콘 데일리 포인트 최고 기록으로 '신기록 제조기'다운 면모를 다시한번 뽐냈다.

출하량 역시 25만여장으로 강력한 인기열풍을 입증했다.

이번 앨범은 트와이스의 일본 데뷔작으로 현지서 25만장 이상의 판매고로 플래티넘 인증을 획득하는 등 '아시아 원톱 걸그룹'의 탄생을 알린 '#TWICE'의 시리즈 2번째 작품. 앨범에는 2017년 10월 발표된 트와이스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LIKEY'를 비롯 'Heart Shaker', 'What is Love?', 'Dance The Night Away', 'YES or YES'의 한국, 일본어 버전 등 총 10트랙이 담겨 풍성한 구성을 이뤘다.

현지 음원차트에서도 '줄세우기'의 위용을 과시했다. 6일 0시 음원 공개 후 현지 라인뮤직 톱100 차트서 01시 기준 'YES or YES', 'Heart Shaker', Dance The Night Away', 'What is Love?', 'LIKEY'의 일본어 버전이 나란히 1위부터 5위까지를 점령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3월 20일과 21일 오사카 교세라 돔을 시작으로 같은달 29일과 30일 도쿄 돔, 4월 6일 나고야 돔 등 현지 3개 도시, 5회 공연에 총 21만명 규모의 돔투어를 진행한다.

이번 돔투어는 K팝 걸그룹 최초이자 해외 아티스트 사상 데뷔 후 최단 기간 도쿄돔 입성으로 화제를 모았다.

최초 돔투어에 이어 최초 매진 기록까지 세우면서 '신기록 제조기'면모를 또다시 입증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음력 2월 2일)

▶쥐띠 계획, 사업 등 모두 전망이 밝다. 능력주의 세대이니 힘껏 밀고 나가도 좋을 듯. 헌 집 버리고 신축하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라. 5, 8, 12월생 북, 서쪽에서 좋은 소식 있겠다.

▶소띠 자기주장만 내세워 급히 서두르다 보니 일을 벌려만 놓았을 뿐이다. 결과는 얻지 못한 채 방황하는 격. ㄱ, ㅅ, ㅇ 성씨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사업에 성공하는 지름길. 1, 5, 8월생은 매매건 불이익하다.

▶호랑이띠 성급한 행동은 오히려 해를 가져온다. 때를 기다리며 자기 수양에 힘쓸 때다. 사업이나 가정문제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재출발하라. 1, 7, 11월생 진실된 삶을 추구하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구설 없다.

▶토끼띠 고생 끝에 낙이 있다. 힘든 시기는 고비를 넘기고 좋은 시기가 펼쳐지는 길일. 채무관계라 재판 건 조심하라. 그대의 마음 하늘이 돕는다. 당신이 남자라면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마음 겉으로 표현해 즐거움 줘라.

▶용띠 매사 꼬이는 것 같아도 약간에 어려움만 이겨낸다면 반드시 노력의 대가 있을 듯.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 서두르지 않는다면 서서히 운이 열릴 듯. ㅂ, ㅇ, ㅊ 성씨는 애정문제를 점검하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

▶뱀띠 주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책이며, 문서 관계에 신중할 것. ㅁ, ㅍ, ㅊ 성씨는 남의 일에 휘말려 자기 것까지 다 빼앗길 수다. 1, 5, 9월생, 큰 자식에게 근심할 일 생길 듯. 말을 적게 하라.

▶말띠 주변이 다소 어수선하더라도 침착하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하니 직장이나 가정에 태양이 비추는구나. ㅇ, ㅈ, ㅎ 성씨 투기는 금물. 남의 말 따르지 마라.

▶양띠 자본이 없어 고전하고 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감히 추진하라. 지금의 진실과 재능이라면 분명 빛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탐욕이나 야심이 숨어 있다면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라. 2, 9, 10월생 이성을 조심.

▶원숭이띠 경쟁보다는 협조가 필요할 때이다. 남의 것만 탐내지 말고 상부상조함이 어떨까. 남, 서쪽 사람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말고 주관대로 일 처리하여 자기 위치를 확보하라. 소, 개, 용띠가 신경 쓰이는구나.

▶닭띠 생각한 일이 늦어진다고 급하게 서둘면 안 된다. 산 말고 계곡에서 물을 찾아라. 물소리가 들리는 남, 동쪽이 길한 방향이다. ㄱ, ㅂ, ㅅ 성씨가 마음을 풀어 줄 것이다. 돼지, 원숭이, 뱀띠와 함께 하라.

▶개띠 계약 문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듯. 애정은 한층 강해진다. 사랑이 싹트겠다. 부정행위의 애정이라면 파산하니 빨리 정리하라. ㄴ, ㅅ, ㅂ 성씨에게 행운이 올 듯. 본인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귀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것.

▶돼지띠 자신의 직분에 책임을 져야 할 때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실로 대할 때 그 사람에게서 멋진 지혜와 활력소를 얻는다. ㅅ, ㅇ, ㅎ 성씨는 여유 있는 사랑이 더욱 정열적으로 될 때 매사 순조롭다. 동쪽이 대길.